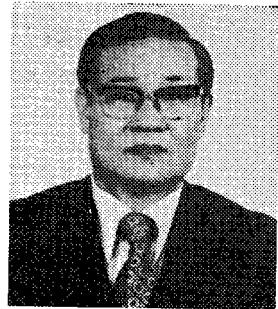


農業基盤의 어제와 오늘

尹 壇 炳

(農業振興公社 技術開發本部長)



논에서 쌀과 보리를 그리고 밭에서 채소와 雜穀을 生產하여 食糧을 調達해 온 傳統的인 우리나라 農業에 있어 일찌기 關心의 焦點은 논에 대한 灌溉에 있었다.

1600餘年前 金堤의 碧骨堤는 우리先祖들의 卓越했던 築堤技術의 象徵이었고, 稻作農業에 따르는 灌溉의 絶對性을 立證하는 것이었다.

全天候農業, 計劃的인 農業, 그리고 生產의 選擇的擴大 등은 한마디로 用水의 人爲的인 保障下에서만 可能한 것이다.

지난 40年間, 우리는 貧困의 힘겨운 逆境속에서 食糧增產이라는 至上課題를 안고 이의 基本的 解決策으로 農業用水開發을 主軸으로 耕地整理, 開墾, 干拓등을 通하여 農土를 整備, 造成해 왔고 增產의 바탕을 構築해 왔다.

1983年末 現在 71%의 水利畠과 32%의 耕地整理가 아쉬운대로 논에 대한 基盤造成의 全部이며, 面積으로 前者は 93萬ha, 後者는 42萬ha에 불과하다. 이 밖에 排水改善 37千ha와 開墾 188千ha, 干拓 133千ha 등 321千ha의 새로운 農土가 造成되기는 하였지만 都市化, 產業化에 의한 潘廢面積을 커버하지 못하여 왔다.

이들 事業에 投入된 政府의 投融資額은 1946年以來 1984年까지 39年間에 4兆 5千億원('84價格換算)에 達하였고 이 中 75%가 1970年以後 15年間에 投資된 것이었다.

確實히 1970年代는 우리나라 社會, 經濟, 全般에 걸쳐 一大轉換期를 맞이했던 것이며 특히 農業基盤造成面에서는 借款資金의 積極的導入에 힘입어, 河口締切에 의한 大規模의 淡水湖의 造成으로 用水源을 確保함으로서 새로운 干拓農地와 背後地의 綜合開發의 轉機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1970年代는 農村近代化의 새바람과 함께 農業基盤이 急速度로, 그리고 着實하게 닦여져 간 것만은 事實이다.

旱魃과 洪水없는 農業基盤이 오랜 우리의 宿願이었지만 아직도 30~40萬ha의 논과, 밭의 大部分이 이들 災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水利의 保障下에 있는 農土라 할지라도 旱魃과 洪水의 程度에 따라 그被害防止나, 復舊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事實이다.

最近 3~4年 氣象條件의 好調와 增產에 대한 強한 意志의 發露로 豊作의 幸運을 맞이할 수 있

었다. 全體穀物의 繼續的인 自給度 低下에도 불구하고, 主穀의 自給達成을 期했고, 食品消費때
면의 變化와 쌀, 單位收量의 持續的인 增大를 前提로 2000年代의 食糧需給을 樂觀視하는 傾向마
저 엿보이며 農業基盤造成事業에 대한 投資規模 또한 相對적으로 즐어들고 있는 事實에 注目하
지 않을 수 없다.

改良, 整備, 造成의 손짓을 멈추지 않고 오늘에 이른 農業基盤은 이제 겨우 힘겹고 아쉬운 한
고비를 넘어선 段階에 이른데 불과하다. 地上으로는 農土이지만 점차 營農活動에 不利해 가는
논, 밭을 包含하여 한고비를 넘어선 1次改良된 農土라 할지라도 果然 今後의 營農活動에 適合한
것인가 하면 이는 分明히 해가 갈수록 距離가 멀어져 간다는 解答으로 歸結될 것이다.

農業의 特質은 1年에 한두번의 生產을 통하여 所得을 期待할 수 밖에 없고, 所得의 保障은 生
產의 增大와 生產量의 最大限의 節減이 基本인즉 이것이 곧 農業基盤 그 自體에서 保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現代農業은 손쉬운 農事, 所得이 保障되는 農業, 그리고 살기좋은 生活環境을
要求하고 있다.

오늘은 어제보다, 그리고 來日은 오늘보다 더 나은 生活을 希求하게 마련이고 따라서 來日을
향한 아쉬움 또한 더해가기 마련이다. 이 아쉬움을 解決하는 길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2000年代 즉 멀지않는 15年後의 農業을 바라본 오늘의 農業基盤은 脆弱하기 짝이 없다. 물의
消費構造의 紛明과 함께 그 管理機能의 體系의in 確立을 비롯하여 營農活動이 他產業과의 連繫
下에 보다 自由롭고 便利하겠음 生產 및 生活基盤의 質의in 改造가 지금부터의 課題이다.

農業基盤이라 하여 再開發을 주저할 理由는 없다. 地域單位로 2000年代의 青寫眞 속에 農業과
農村에 活力を 불어 일으킬 수 있는 基盤造成이 새로운 觀點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지금은 이와
같은 轉機마련에 慎重한 研究와 開發技術을 蕪積할 때이다.

性急한 樂觀과 安逸한 對備策으로 急함을 當할 때 臨機應變의 졸속이 그 얼마나 많은 人力과
資金의 浪費를 가져왔는가를 우리는 지난날 수없이 經驗하여 왔기에 꾸준하고 果敢한 農業基
盤改造에 대한 設計에 다 함께 精誠을 다할 것을 바라는 마음 懇切하다.